

# ‘효자종목’ 다이빙·자전거·체조 입상 전망

### 제48회 소년체전 제주선수단 전력분석(상) 기록종목 여자중학부 사이클 단체추발 2km 올해에도 기대 10개 이상 메달 획득 목표... 메달밭 다이빙 ‘주목’

제주도선수단이 지난해 충북에서 열린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이하 소년체전)에서 역대 가장 많은 금메달을 포함해 38개(금 14·은 13·동 11)의 메달을 쏟아냈다. 질적·양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며 제주 엘리트체육의 성장 가능성을 한껏 고조시켰다. 선수단은 오는 25일부터 28일 전북에서 열리는 제48회 소년체전에서 25개 이상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세차례에 걸쳐 기록종목과 토너먼트종목, 그리고 백중세 경기에서의 메달 가능성을 점검한다.

▶“효자종목, 다이빙 올해도 부각해”=제주도선수단은 기록종목에서 효자종목인 수영 다이빙 7개를 비롯해 체조 2개, 자전거 1개 등 메달 10개 이상을 노리고 있다. 종목별로 가장 많은 메달이 예상되는 다이빙은 그야말로 ‘메달밭’이다. 지난해 남초부 다이빙에서 메달 3개(은 2·동 1)를 획득한 강지상(한라중 1)이 남중부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강지상은 플랫폼 다이빙과 1m 스프링에서 은메달을, 3m 스프링에 동메달을 따냈다. 여기에 박지혁(한라중 3)

을 비롯해 초등학교 때부터 맹활약했던 여중부 윤유빈(한라중 2), 이다연(한라중 1)의 선전이 기대된다. 강지상의 동생인 강지호(도남초 5)가 어리지만 6학년 선수들과 대등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중부 이에주(월랑초 5)와 고현지(삼성초 6)가 메달 획득에 힘을 보탠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두각을 나타냈던 쌍둥이 형제 김대준·대운과 김예림·설은재가 고교 진학으로 다소 선수층이 얇아졌다”라며 “하지만 지난 동계훈련 기간 착실히 훈련한 결과 선수단의 경기력이 향상되고 있어 메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다.

▶제주동중 사이클 3년 연속 입상 도전=제주동중 사이클팀은 2016년 충남에서 열린 제46회 소년체전 자전거 여자중학부 2km 단체추발에서 동메달

을 따내며 소년체전 사상 첫 메달을 제주도선수단에 안겼다. 이어 지난해 충남에서 열린 제47회 소년체전 같은 종목경기에서 또다시 은메달을 목에 걸며 괴력을 과시했다.

창단 5년 만에 제주동중은 지난해 전국무대를 주름잡으며 전국대회 합산 여중부 1위를 차지했다. 올해도 대통령기사이클 2연패 등 굵직한 대회에서 여러차례 입상하며 메달 전망을 밝히고 있다. 김은송·이효민·정소민(이상 3학년)·박경령(2학년)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체조 여중부 도마와 마루종목에서 현진주(한라중 2)이 메달 획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평균대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올해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등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백금탁기자



월랑초 윤주현(사진 오른쪽 두번째)은 남초부 자유형 5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 제주 김영빈 전국장애학생체전 수영 3관왕 대회 둘째날 메달 7개 합작... 윤주현은 2관왕

제주도선수단이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둘째 날도 메달 7개(금 2·은 2·동 3)를 추가하며 순항하고 있다. 특히 수영에서 김영빈(제주사대부고)이 3관왕을, 윤주현(월랑초)이 2관왕을 차지했다.

김영빈은 15일 전북 전주완산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자유형 5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윤주현은 남초부 자유형 5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육상종목에서도 메달이 나왔다. 김유림(제주영지학교)이 익산공설운동장에 펼쳐진 원반던지기 F35에서, 이희진(제주영지학교)이 원반던지기 F32에서 각각 은메달을 추가했다.

백지원(제주사대부중)은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중부 +80kg급에서 동메달 3개를 들어올렸다.

이로써 제주도선수단은 첫 날 수영에서 금메달 3개와 함께 이날 메달 7개를 따냈다. 반면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 배구 8강에서는 제주팀이 지난해 우승팀 대전과 만나 최종스코어 0-2로 아쉽게 패했다.

대회 3일째인 16일 제주도선수단은 육상, 수영, 배드민턴, 실내조정, 탁구, 플로어볼, 역도, 볼링 경기를 치른다.

백금탁기자 haru@halla.com



커리 VS 커리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오리클라에서 열린 2018-2019 NBA 플레이오프 서부 콘퍼런스 파이널 1차전 경기에서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의 세스 커리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프 커리(왼쪽)를 막아내고 있다. 이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에 116-94로 이겼다.

## 로드FC 053 제주대회 소방·경찰관 무료 입장

아시아 MMA(종합격투기) 역사상 최대 상금을 내건 로드FC 053 제주대회(대회장 강영식) 개최와 관련, 도내 소방·경찰·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무료입장이 이뤄진다.

해당 공무원은 행사 당일인 18일 오후 4시30분까지 한라체육관으로 공무원증을 소지하고 입장하면 된다.

이 대회는 100만달러의 상금을 내걸고 권아솔과 만수르의 로드FC 라이트급 챔피언 타이틀전을 비롯해 중국의 인기파이터 아오르꺼려와 소방관 파이터 신동국 등이 출전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 제주국제체조대회 북한팀 참가 긍정적 내달 18~19일 한라체육관 20개국 유명선수 총출동 내년 도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구성 가능성 기대

제3회 코리아컵 제주국제체조대회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북한팀 선수단의 참가 여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한체조협회가 주최하고 제주도체조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15일 현재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등 20여개국에서 선수단 200여명이 출사표를 냈다. 여기에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 북한선수단 15명이 출전을 희망하고 있다.

초청대상 선수는 세계 최우수 선수들로서 2016 리우올림픽 및 2017-

2018 세계선수권대회 종목별 메달리스트, 체조 개발국, 북한 선수 등이다. 여기에 한국에서는 도마종목의 2012년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학선(27·수원시청)과 여흥철의 딸 여서정(17·경기체고)을 비롯해 제주에서는 양제미(18·남녕고)가 도마종목에 출전한다.

이와 관련 강창용 제주도체조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회 최대 관심사인 북한팀 참석 여부가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며 “와타나베 국제체조협회장과 우리나라 통일부를 통해 북한팀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컵 제주국제체조대회는 오는 6월 18-19일 이틀간 한라체육관에서 나흘간 펼쳐진다. 기계체조와 리듬체조가 한 경기장에서 펼쳐지며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일에는 K-POP 가수의 공연과 함께 제주민속공연팀 예담의 불허벅춤이 무대에 오르며 대회의 풍미를 더한다.

이번 대회와 함께 국내 경기로 중별체조대회가 이 기간인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열리며 선수단과 학부모 등 800여명이 제주를 찾을 전망이다.

백금탁기자

## 제주소포츠클럽 테니스선수 육성 시동 유소년 20명 대상 운영... “전문선수반 확충”

제주소포츠클럽이 테니스 종목 엘리트 선수 육성에 시동을 걸었다.

사단법인 제주소포츠클럽은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테니스 프로그램 수준별 학습반(매직테니스)을 지난 14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6~7시 초등학교 유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제주소포츠클럽은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이 뛰어난 전문선수를 발굴 해 지속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도내·외 대회에 출전시킬 계획이다.

부평구(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 회장은 “앞으로도 전문선수반 확충을 통해 제주체육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소포츠클럽은 현재 한라체육관 보조경기장, 도체육회관 실내체육관, 연정정구장 등에서 농구·탁구·요가·춤·테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제주소포츠클럽 064)751-7330.

백금탁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동행(재) 11:55 나의 독립 영웅(재)	6: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여름이 부탁해(재) 9:40 그녀들의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닥터 프리즈너(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용왕님 보우하사(재) 8:30 TV전국시대 9:30 930 MBC 뉴스 9:45 기본 좋은 날 10:50 더 뱅크(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30 모닝와이드 2부 7:25 JIBS 뉴스 7:40 모닝와이드 8:40 강남스퀘어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7:30 출동! 슈퍼월드 8:00 댄서동 유치원 1 9:30 물방 10:30 한국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4:45 로이와 함께하는 소망안정 이야기 15:15 출동! 피자마 살중사 16:55 워킹맘 뮤지비츠 18:00 생방송 특목! 보너하니 19:00 원더볼츠 20:40 세계테마기행
12:00 KBS 뉴스12 13:00 사명의 기적 13:50 꼬마야사 콩도령 2 14:20 시드노트 14:50 2019 KBS 창작동요대회 수상곡 14:55 솔러 15:00 TV쇼 진품명품(재) 16:00 시사간전 17:00 KBS 뉴스 5 17:30 동행의 왕국 17:55 나의 독립 영웅	12:10 원순정이 아내(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세상의 모든 다류(재) 15: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누가누가 잘하니 17:00 뚝방 V 17:15 보트스 패밀리 17:30 주간연예수첩	12:00 12시 MBC 뉴스 12:25 장애인개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13:05 9시 시사교섭(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25 BBB삼총사의 모험(재) 15:55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스페셜 16:55 이몽(재) 17:55 테마기행 길	12:00 SBS 12뉴스 12: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뉴스 12:50 절대 그이(재) 13:55 2시 뉴스 외전 14:00 뉴스브리핑 16:00 반딧불 친구야(재) 16:30 최중우돌 아남매의 제주여행 17:00 SBS 오뉴스 17:40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임미현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창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15 시사저널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간전 22:05 서연미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한국인의 밥상 20:30 여름이 부탁해 21:00 KBS 뉴스 9 22:00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KBS 스페셜 22:55 오늘밤 김제동 23:35 솔러 23: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원순정이 아내 20:30 글로벌24 20:55 체보자들(재) 22:00 굿바이 닥터 프리즈너 22:35 굿바이 닥터 프리즈너 23:10 해피투게더 23:55 해피투게더	18:50 용왕님 보우하사 18:30 MBC 뉴스데스크 20:55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22:00 더 뱅크 22:35 더 뱅크 23:10 색선TV 연예통신	18:00 정글의 법칙(재) 19:00 제주를 말한다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순간포착 세상에서 이면이야기 22:00 절대 그이 22:40 절대 그이 23:10 집속기 무비월드	KCTV 6:30 KCTV VOD 새내한수 7:00 KCTV 뉴스 8:30 헬로 코리아 10:00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11:40 오케이즈 12:10 열대야요 13:30 인사이드 제주 14:00 제주도의회 임시회 17:40 신기한 수학나라 19:00 KCTV 뉴스7 20:10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16일**

김홍상 지단(호리)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곡원 교수(010-5233-6136)

**36년** 음식과 안경속에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 48년 투기나 도박에서 불리하니 안정이 보장되는 은행의 적금이나 투자가 적절. 60년 혼자 있는 시간보다 외로움이 불려오니. 여행도 필요. 72년 협회나 동호회등 모임이 있다. 안정사고 조심. 84년 수판이 뚜렷치 않을 때 선배의 충고와 내게는 보약이 된다.

**37년** 운전목이나 사우나에서 안정을 취해도 좋음. 49년 도움을 줄 일이 생긴다. 내 도움이 막막하지만 상대에게는 크다. 61년 활동이 왕성해도 내맘대로 할 수가 없다. 73년 남의 말에 너무 맹신하지 마라. 도움이 안된다. 충동구매 주의. 85년 이성교제 또는 만남이 생기니 귀가는 늦지 않도록 할 것.

**38년** 상가 또는 식당에 갈 일이 생기니 음식은 주의해야. 50년 문서상 이동수는 길하나 입시생이 있으면 부모는 정보분석등 전문가와 상담. 62년 작은 일로 마음에 상처가 되니 관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적 일을 하라. 74년 시험 자격증과 관련된 시험은 컨디션이 좋다. 86년 재능을 인정받고 주위 협조가 있다.

**39년** 자녀로 인한 기쁨이 오거나 소식을 접한다. 모임 초대가 온다. 51년 친구를 만나 외출을 하거나 회식자리가 생긴다. 63년 약속은 남치나 막상 해야할 일의 중요성과 가치때문에 고민한다. 75년 변동. 변화가 필요. 부족을 채우려고 고민하니 상의할 사람도 필요. 87년 늦게 약속이 생기면 취소하는게 좋다.

**40년** 과거를 후회하기 보다는 교훈으로 삼아 내일을 준비. 52년 소망할 일이 생긴다. 필요한 것만 구입하라. 64년 원칙과 꼼꼼함보다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 순발력과 유연성으로 대처하라. 76년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니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라. 88년 구설수가 있으니 이성간 또는 햇사람과 조심.

**41년** 일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점을 검토하고 제거방법을 찾는다. 53년 매마나 입대에서 이익이 있으나 술은 자제. 65년 자녀로 인한 고민 같게 오니 주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봐도 좋다. 77년 모임, 약속이 생기기도 하니 술은 다소 자제. 89년 인연이 있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조기 귀가.

**42년** 부부간 갈등이 있거나 가정사로 고민이 생긴다. 이해와 배려가 묘약. 54년 실속이 적으니 신중하게 처리하거나 자중해야 한다. 66년 변화를 필요로 하는 날이다. 중요한 계약은 내일이 미루라. 78년 제테크 투자가 길하다. 주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라. 90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존경을 받는다.

**43년** 내 노력을 인정받고 관청의 인허가 서류에 이익이 있다. 55년 문제가 있다면 친구나 이웃에 요청하라. 67년 가정에서는 사소한 문제로 불화하나 바깥에서는 활동영역이 넓다. 79년 전문적인 이익이 따르고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는다. 91년 사사로움 감정이나 오해로 인한 인장은 심신을 상하게 한다.

**44년** 분별력이 필요하니 생각을 신중하게. 경기장등은 비웃음에 대상이 된다. 56년 문상 또는 모임에 간다. 음식에 주의할 것. 금전상 이익이 있는 날. 68년 일한 만큼의 이익 생기고 창업이나 개업은 신중하게 판단. 80년 직장이나 취업문제에 대한 소식을 접한다. 92년 변동하는 것은 불리하니 신중을 기해야.

**45년** 희망을 갖고 노력하면 일의 성과가 있다. 57년 상태를 감싸 안아 주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니 이해를 많이 해줄 것. 69년 수입이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주변과 공유하라. 81년 부동산이나 세일즈분야에서는 인정을 받는다. 93년 나의 체력이 왕성해도 능력을 인정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46년** 자녀나 수하인이 자문이나 상담이 생긴다. 58년 이익을 먼저 논하지 말고 대의에 동참하는 게 좋다. 70년 새로운 발상 또는 손재주로 인한 사업은 진전이 있고 창업을 준비하기도 한다. 82년 미용분야의 뷰티업·악세사리업은 기쁨이 많다. 94년 소망하던 일이 풀리고 마음이 즐거운 하다. 문서운이 있다.

**47년** 경쟁이 진행되고 질투나 배신 등이 오니 신중하고 친목에 어울려야 좋다. 59년 형제중에서 애·경사가 생겨 축하해 줄 일이 생긴다. 71년 창업, 매매, 전문업은 활동이 분주하고 이익 증가. 83년 허세를 부리면 구설수에 오르니 필요한 말만 하고 행동조심. 95년 무리한 투기보다는 안전에 치중 필요.